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만들겠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각오 다져... 대선 앞두고 여야 충돌 조절 · 정권교체 역할론 부상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된 정세균(66) 신임 의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그는 쌍용그룹 상무 시절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계입문 제안을 받고 ‘김대중 특보’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책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민주 유능한 경제 정당위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을 통과시켜 주목 받았다. 특히 산자부 장관 시절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해 ‘3,000억 달러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때 범친노무현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과의 분열 등 내용 속에서 굳건한 버팀목이 됐다. 그는 4.13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승리,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16대 국회의 후 14년만에 탄생한 야당 출신 정 의원의 앞날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소야대인 상황이고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충돌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당내에서는 중진으로, 야권 의원으로서 정권교체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운영 구

심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정 의장은 “국회는 단순한 3부 중 하나가 아니라 의원 하나하나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 주체로서 당연한 경제위기와 구조적 위기에 선제 대응해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광영 기자

선풍기 · 에어컨 화재 8월 최고

최근 5년간 380건 중 131건 차지... 사용전 먼지 털어야

본격적인 무더위로 선풍기·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80건으로 40명의 사상자(사망 7명·부상 33명)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선풍기·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는 6월 34건, 7월 94건, 8월 13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빨라지면서 벌써부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실에서

선풍기 발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건물내부 일부가 불에 타고 진화됐다. 또한 5일 부산 주례동에서는 복합건물 1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실외기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선풍기 화재는 모터 과열에 의한 경우가 많고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축적으로 화재가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선풍기는 사용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모터부분이 뜨겁게 느껴질 때는 사용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에어컨은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박용주 기자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화이팅 2016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가 9일 익산시 팔봉동 익산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과 각국 선수단이 승리와 화합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내 학교 조리사 · 교무실무사 비정규직 총파업

전북지역 학교 조리사와 교무실무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노조원들은 9일 전북교육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기상여금 도입, 급식비 차별 해소 등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하루 총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10일까지 이틀간 파업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에 일부 진전을 보이며 하루만 파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각종 수당과 복지에 대한 차별, 풀리지 않는 고용 불안이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이를 없애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이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기본급 3% 인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연 100만 원의 정기상여금 신설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관광기금 상시 용자, 도내 업계 큰 도움 기대

문체부, 하반기에 전체 기금의 50.1% 2,507억원 용자... 체류형 관광 탄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절반을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상시 용자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전북도 내 관광업도 수혜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도는 체류형 전북관광을 위해 14개 시·군 특화 관광지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숙박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31일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 관광기금 5,000억원의 50.1%인 2,507

억원(시설자금 1,757억원, 시설특화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450억원)을 상시 용자체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연 2차례 20여 일의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용자하던 것을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용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자한도는 신축·증축자금 15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100억), 개보수자금 8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50억)이다. 용자금리는 기획재정부 용자계정 변동금

리를 기준금리(20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용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관광·숙박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도는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해 14개 시·군에 14개 특화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를 ‘관

광 패스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 중에 있다. 이 경우 도내 숙박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는 관광객의 편의와 도내 관광 사업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는 도내 관광 사업체가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도 관광총괄과장은 “관광 사업체가 상시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숙박시설 시설개설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도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조상망 ‘지적원도’ 50만매 원본처럼 생생하게 열람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등 사유로 토지 소유권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약 50만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화는 조선총독부가 1912~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50

여만 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경기(7만4106매), 강원·충청(15만5435매), 전라·경상(27만5529매) 순으로 추진한다. 지적원도 원본 50만여매의 면적은 총 9만9720㎢로 남한 전체에 해당된다. 이 지적원도는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다.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과 그 동안 토지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 조동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